

화면 속 AI는 생각하는 걸까?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 <생각 중 Thinking or Calculating> 개최

- 「반가사유상」과 「생각하는 사람」부터 인공지능까지, 과학으로
풀어보는 '생각'의 정체

미래의 꿈을 만드는 과학기술문화 플랫폼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직무대리 김황식)은 오는 7월 14일(화)부터 10월 18일(일)까지 창의나래관 특별전 시설에서 과학, 예술, 인문학을 융합한 특별전 <생각 중(Thinking or Calculating)>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의 기획 방향성은 대화형 인공지능(AI)이 질문을 받으면 화면에 '생각 중...'이라고 표시되는 모습에서 착안되었다. AI는 정말 생각하는 것일까? 인간의 생각은 어디에서 시작되고, 몸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전시는 이러한 질문을 과학과 예술, 인문학의 시각에서 함께 탐구하도록 구성되었다.

전시는 생각하는 자세를 담은 두 조각상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이하 반가사유상)」과 「생각하는 사람」에서 출발해, 뇌 안에서 일어나는 신호와 몸의 자세, 인공지능과 로봇에 이르기까지 '생각'이 드러나는 여러 층위를 차례로 짚어간다. 관람객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학적 탐구를 제안하는 것이 이번 전시의 목적이다.

관람객이 '생각'의 과정을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네 개의 주제로 구성된다. ▲1부 '생각이란 무엇일까?'에서는 AI의 연산 과정과 인간의 사유 과정을 비교하며 생각의 의미를 살펴본다. ▲2부 '생각은 어디서 시작될까?'에서는 뇌 속에서 일어나는 전기·화학적 신호를 통해 생각이 만

들어지는 원리를 소개한다. ▲3부 '생각과 우리 몸'에서는 「반가사유상」과 「생각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몸의 자세와 뇌 활동의 관계를 조명한다. 뇌파 측정 기술이 없던 시대에도 예술가들은 인물의 자세를 통해 '생각'의 상태를 표현하고자 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러한 예술적 통찰에 착안해, 이완된 자세의 「반가사유상」과 깊은 사유에 잠긴 「생각하는 사람」을 비교하며 몸의 자세와 뇌 활동의 관계를 살펴본다. 전시장에서는 두 조각상의 모형과 함께 뇌파 변화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미디어아트를 통해 생각과 몸의 연결성을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다. ▲4부 '생각은 몸이 필요할까?'에서는 로봇과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기술을 소개하며, 생각이 인간의 몸을 넘어 기술과 연결되는 미래 가능성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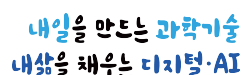
전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상설 프로그램 'POSE 16: 나의 생각하는 자세'에서는 관람객이 자신의 사고 유형을 알아볼 수 있으며, 8월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도슨트가 참여하는 특별 해설이 진행된다. 10월에는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생각하는 자세 대회'도 열릴 예정이다.

김황식 국립중앙과학관 관장 직무대리는 "이번 전시는 과학과 예술, 인문학이 함께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활동인 '생각'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는 자리"라며 "관람객들이 자신의 몸과 뇌가 만들어내는 사고의 과정을 이해하고, 생각하는 즐거움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www.scienc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특별전 <생각 중 Thinking or Calculating> 포스터 1부. 끝.

담당 부서	국립중앙과학관 전시운영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석형 (042-601-7981)
		담당자	주무관	진현서 (042-601-7936)





메인 포스터



포스터 ver1

포스터 ver2